10.15686/fkl.2025..66.500 OPEN ACCESS

틈새 속, 정동의 길을 걷는 법

-알리 라라 엮음, 권명아 외 역, 『정동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목차

1 ‘왜’ 정동 연구가 필요한가: 몸의 역량과 당위적 과제
2 정동의 사회적 가치와 연구 방법론: ‘틈새’를 위한 전략
3 지도책이 안내한 길: 세 가지 실천적 순서
4 남아 있는 틈새: 육신의 한계와 공적 감정의 모순

『정동연구 지도제작』(알리 라라 엮음, 갈무리 2025). 이 책은 감히 축복이다. 최소한 정동 연구자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친절하기까지 하다. 지도제작자 알리 라라는 책의 제작 배경과 정동 연구에 던져진 핵심 질문들에 친절하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그리고 이어진 다섯 편의 주제별 자세한 지도들은 어지러운 수풀을 헤쳐나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정동과 노동(기예르미나 알토몬테)에 대한 길 안내, 인종이 아닌 흑인성을 통한 길 안내(콜린 P. 애슐리, 미셸 빌리스), 문학·예술 속 '재현 사이'와 '재현 너머'라는 두 개의 정동적 길 안내(산드라 모야노-아리자), 난해한 퀴어 이론 수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 느낌(가라앉음, 퇴보성, 기계됨)을 제시한 길 안내(리우 웬), 마지막으로 인지 및 신경과학을 통한 길 안내(토니 D. 샘슨)까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글이 없다. 여기에 한국 독자에게 또 하나의 축복은 외국 학자들이 주제별로 총망라한 정동 연구의 세부 안내에 대해 각각의 한국 번역자들이 또다시 해제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충실한 안내 외에도, 각 장에 상세하게 제시된 수많은 참고문헌 목록은 숨겨진 가장 큰 축복이라 하겠다.

1 '왜' 정동 연구가 필요한가: 몸의 역량과 당위적 과제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왜' 정동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료한 가치 설정이 곳곳에 드러난다. 제작자 라라는 그 시초를 알린다. 정동 연구는 "재현, 언어, 의식적 활동의 너머/이전/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탐색하려는 기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다(28, 41쪽). 나아가 '몸들의 역량(capability)'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그 역량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의 가치에 주목한다(30, 31쪽). 사실 정동은 "경험 하부적(infra-empirical) 차원"(31쪽)의 것이기에 "이성적 평가나 인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미묘하거나 일시적인, 자기 성찰에 열려 있는 상태의 범주"로 치부될 수 있다(194쪽). 그에 반해 감정은 현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명료하고, 범주화시킬 수 있는 강렬한 느낌에 붙인 이름표로 이해되곤 한다. 이것은 학문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권명아의 해제에 등장하는 신야오의 지적처럼 "감정에 대한 보다 추상적인 보편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교활하고 편리한 인식론적인 삭제 역할"(71쪽)인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

도책은 독자들에게 왜 정동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해 준다. 그중 정동과 노동의 길 안내자 알토몬테의 지적은 최고의 문장으로 다가온다. “만약 일터에서의 정동이 자본 축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동의 전유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108쪽) 그가 길 안내 서두에서 말했던 “일은 음식, 사랑, 또는 수면보다 더 우선시되는 긴급함으로 삶 자체를 구성한다”(80쪽)라는 지적으로부터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삶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 정동에 대한 탐구는 외면할 수 없는 당위적 과제이다.

2 정동의 사회적 가치와 연구 방법론: ‘틈새’를 위한 전략

학문 영역에서도 정동 연구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또한 명료하다. 그중 정동과 흑인성을 안내한 애슐리와 빌리스의 장의 안내가 가장 인상적이다. 정동 연구는 “삶과 죽음, 감정과 정치, 통제와 탈주를 가르는 힘의 구조를 묻는 이론”이다(174쪽). 생존을 위한 개개인의 치열한 분투 속에서 인구 집단에 대한 “미래의 통치는 정동적 잠재력을 조작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160쪽). 그것이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 불안정성, 수치심 등 어떠한 정동적 매개를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기획하고 안내한 권명아의 젠더·어펙트 연구소가 설정한 정동 연구의 지적 원천 두 가지, 즉 ‘차별과 식민화에 관한 탐구’가 그 의미를 잘 드러낸다(69쪽).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지구 생명체까지 차별과 식민화의 힘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지도책은 그 힘의 구조에서 작동해왔던 의식 너머/이전/외부에 존재하는 정동적 작용의 흔적을 파헤친다.

물론, 독자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그 정동적 ‘흔적’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방법일테다. 지도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에 대한 제작자 라라의 안내이다.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정동 연구에 그런 건 없다.”(31쪽) 그저 “묘사와 가늠(speculation)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중간 지대의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고백한다(36쪽). 그렇지만, 정동이 아닌 "이들이 실어 나르는 정동적 마주침의 역사"의 자취를 밟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창의적인 실험 방식', 둘째, '체화된 필드워크', 셋째, '정동적 텍스트성을 수집하고 생산하기'이다(34, 35쪽). 라라의 안내가 반가웠던 것은 그 전략들이 전부 인류학자로서 연구자의 몸 그 자체를 '필드노트'로 사용해왔던 나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었고, 이를 통해 왜 인류학자로서 해소되지 않던 의문들을 풀기 위해 '정동 연구'에 기대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길을 알아도 걷는 법을 모르면 갈 수 없듯, 걷는 법만 안다고 길을 찾을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3 지도책이 안내한 길: 세 가지 실천적 순서

지도책 제작자 라라는 가이드에서 여러 번 '깨닫고' '재고하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 의도에 걸맞게 각각의 길 안내자들은 친절하게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몸의 역량'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동안 다양한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페미니즘, 젠더 연구, 퀴어 이론, 장애학, 비판적 인종 연구 등의 계보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에 대한 여러 담론의 계보, 그리고 신유물론과 인지 및 신경과학에서의 정동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길도 깊고 넓다. 그 길을 찾아가는 선택지는 여럿이겠지만, 내가 발견한 놀라운 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의 길을 떠날 초보자에게 아주 명료하게 세 가지 '느낌'의 소로를 제시한 리우 웬의 5장이다. 이 장은 정동 연구를 현실에서 어떻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다. 바로 '가라앉음 느끼기(feeling down)', '퇴보성 느끼기(feeling backward)', '기계됨 느끼기(feeling machinic)'! 퀴어의 몸에 달라붙고 순환되는 정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이 세 가지 실천적 방법론은 단지 퀴어의 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제안은 그 실효성뿐만 아니라 퀴어 이론의 계보에서부터 여러 정동 학자들의 논쟁들이 만든 난맥을 명료하게 정리해 준 지도이다. 퀴어의 몸이 "문화적 영역에서의 정동의 순환이 낳은 효과"(256쪽) 속에 억눌려 있었는지를 파헤치고, '공적인 느낌'(public feeling)을 통해 "정동이 사회적 배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257쪽)"를 보여줌으로써, 그 미

로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 길은 차별과 억압에 짓눌린 모든 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산드라 모야노-아리자가 제시한 4장, '재현 사이'와 '재현 너머'에 대한 길 안내다. 이 장은 평소 정동이 무엇인지, 나아가 정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헤매던 독자에게 명료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정동을 의식이 포착할 수 없는 '과잉'(excess)으로서 해석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이 장은 몸과 몸 사이 정동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과잉으로서의 정동은 바로 "주체성, 인지, 정의, 그리고 재현을 벗어나는 바로 그것"(186쪽)이다. 또한, 정동을 그 자체로 '역량'(capacity)을 지닌 새로운 실체로 파악한 논의들을 통해 정동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시야를 갖게 해준다. 즉, 정동이 '재현의 본질을 바꾸는' 매개로서의 재현이라는 틀 바깥의 중간 영역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205쪽).

이러한, 정동에 대한 질문이 심화되어 정동을 어떻게 느끼고, 의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지 근원적 질문에 빠져 헤매는 독자가 있다면, 토니 D. 샘슨이 작성한 6장을 읽기를 권유한다. 특히, 정동을 '의식적 활동의 너머/이전/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무의식'(unconscious)이 아닌 '비의식'(non-conscious)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일부 독자에겐 신선한 충격일 수도 있겠다. 샘슨은 기존 정동 학자들(특히, 신유물론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정동이 "단순히 인간의 몸에서 다른 인간의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물질성과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비의식적인 힘"으로 소개한다(310쪽). 나아가 최근 번역된 영문학자이자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인 캐서린 헤일스의 『비사고, 인지적 비의식의 힘』(커뮤니케이션북스 2025)을 중심으로 "협의의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 에너지,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인지적 비의식'을 소개한다(323쪽). 이 장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샘슨이 대비한 헤일스와 신유물론의 차이이다. 즉, '인지 어셈블리지의 상향적 구성'과 '마주침의 힘'의 대비다(327쪽). 샘슨은 헤일스를 통해 대표적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찌오식 정동 이론에 대비하여 신유물론자의 초점, 즉 "의식의 창발보다는 신체적 사고, 정신을 통제하는 전-인지, 정동적 전염에 대한 취약성과 같은 대안적 개념들"(331쪽)에 대해 강조한다. 물론, 신유물론

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물리적 힘들과의 마주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인지가 창발된다고 가정한 특정 수준의 과정들 속 세부 사항을 간과한다"는 헤일스의 비판도 잘 보여준다(332쪽).

샘슨의 6장 논의가 정동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큰 틀을 보여주었다면, 기예르미나 알토몬테는 2장에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인의 정체성 구성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노동'이 어떻게 정동화되어지고 있는지 '비물질 노동 속 정동 노동', '재생산 노동', '감정 노동', '친밀 노동'이라는 대표적 개념들의 계보를 대차대비해준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독자의 몫일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고, 그것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독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이제 노동이 "노동자 자신에게 정체성과 자아실현의 주요 원천"(82쪽)이기에 6장의 섬세한 길 안내는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알토몬테는 각각의 접근 방식이 정동을 너무 '좁게', 혹은 너무 '폭넓게' 바라보게 하는 시야의 차이로 인해 상호 비판의 지점도 놓치지 않는다(91쪽). 그렇지만, 알토몬테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긴장감, 즉 노동을 통해 경험하는 노동자의 소외와 착취 속 두려움과 함께 스스로의 즐거움 혹은 쾌락을 찾는다는 것에 또한 빼놓지 않는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국 감정과 노동, 삶과 일에 대한 "끊임없이 얽혀 변형되는 방식을 포착할 새로운 어휘를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탐색"(110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지도책을 살피며, 가장 놀랍고 반가웠던 것은 콜린 P. 애슐리와 미셸 빌리스의 3장 '정동과 흑인성'이다. 이 장은 정동을 단순히 '느끼짐'(feltness)가 아닌 '역량'(capacity)의 논의임을 강조하며 '인종'에 대한 기존 논의를 지우고, 역사적으로 조작되어 온 '무엇을 인종이라 정의'하며, 특정 인종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142쪽). 결론적으로 인종이 "신체들, 공간, 역사 등과 서로 결합하게 만드는 능력"(144쪽)이며, '흑인성'은 "신체 이전의 물질"로서 백인성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인간'의 조건이라 말한다(157쪽).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저자들이 소개한 웨헬리예의 『육신의 권리』(Habeas Viscus) 논의다. 여기서 '육

신’으로 소개된 viscus는 법적 지위를 갖는 신체(corpus)가 아닌 살덩어리, 즉 내장으로서의 신체를 의미한다(154쪽). 바로 이 살덩어리가 ‘비인간화의 도구’가 되며, “영혼을 천천히 태우는 저 에테르, 저 똥”이라 말한다(156쪽). 이러한 논의가 놀라운 것은 지도 제작자인 라라가 시작부터 강조한 역량으로서의 ‘몸’이 어떻게 ‘뇌’나 ‘감각기관’이 아닌, 그리고 주변 환경과 비인간 존재와 마주치는 ‘접점’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닌, 의미화 이전의 덩어리로서의 물체로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아무리 ‘똥’처럼 취급된다 할지라도 그 포기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육신의 존재는 정동 논의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4 남아 있는 틈새: 육신의 한계와 공적 감정의 모순

이 서평이 거대한 정동 세계를 총망라한 지도책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는 없겠다. 각 장마다 소개된 참고문헌 하나를 좇아가 열어보아도 또 다른 광활한 정동 세계가 펼쳐지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도책을 위 순서로 소개한 이유는 정동이 무엇이고, 정동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현실의 차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실천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안내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새로운 길, 혹은 다뤄지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몇 가지를 다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5장의 길 안내에서 소개한 공적 감정에 대한 앤 츠베트코비치의 논의다. 여기서 ‘우울’은 대표적인 공적 감정으로 지적하며, 우울을 개인의 틀 밖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그 ‘우울’ 역시 인간의 느낌에 대한 언어적 표지라 할 수 있다. ‘우울’로 범주화된 느낌 역시 병적인 수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정서적 압박감 등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쉽게 ‘공적’이라고 선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함께 소개된 로렌 벌렌트의 ‘잔인한 낙관’ 역시 ‘좋은 삶’에 대한 약속에 감정적 애착을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제도, 그것이 만든 ‘정동의 구조’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누가 누구의 희망과 낙관을 정치적 무력감과 수동성으로 단언할 수 있을까. 의식, 인지 등으로 파악 혹은 재현 불가능한 정동의 ‘과잉’을 추적하지만, 그 모든 해석과 판

단이 의식적 개념 안에 '정돈'되는 모순이 불가피하다. 공적 감정에 대한 논의 속 '공적'의 대상이 될 누군가에겐 그러한 해석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장의 길 안내, 즉 불안정한 삶 속에서 노동자가 갖는 양가적 감정(두려움과 공포 대 쾌락)에 대해 조명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특히, 2장에서 필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부분, 즉 노동자들이 갖는 '부정적인 정동들'(피로, 소진, 좌절)이 정동 노동 이론에서 가려져 있지만(105쪽), 실제로 우리가 노동과 맺는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 점, 동시에 '쾌락'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기존 노동 연구에 대한 지적(106쪽)이 반갑다. 왜냐하면, 책에서 정동의 전염에 대해 '호르몬 흐름' '고유된 리듬'을 강조하고(325쪽), 비의식적 상호작용에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하드와이어'를 소개하며(329쪽), 정동의 매개체로서 개체(organism)가 아닌 원자적 단위(subatomic)에서 문화적 수준까지 다른 '생물 매개 역량'(biomediated capacity)을 소개하지만(276쪽), 3장에서 언급된 웨헬리예의 '육신'에 대한 논의가 다른 길 안내자들의 논의에서 충분히 교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정동이 발현되는 중심적 공간으로 부각되지만, 그 몸이란 그 육신으로서의 한계 혹은 역치로 인해 피로하고, 소진될 수 있으며, 쾌락이 없다면 회복될 수 없는 살덩어리다. 그 지점이 정동 이론의 논의에서 전체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숙제라 할 수 있겠다. 즉, 라라의 지적처럼 '깨닫지 못해' '재고하지 못해' 정동적 조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육신이 이미 지쳐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즉, 부정적 정동으로 언급된 피로와 소진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육신의 근본적 한계일 수 있다.

나아가 정동을 '전 개인적'이라 하지만, 경험 하부의 것이라 하지만, 진정 100% 그러할까라는 의문은 항상 존재한다. 개인의 '순수한' 의지란 없겠지만, 그 의지의 역량조차 부정할 순 없다. 정동이 항상 '매개'에 종속된다고 길 안내하지만, 모든 개인이 실험실 케이지 속 쥐일 순 없을 게다. 그러하기에 정동에 대한 논의가 개인이 아닌 인구 집단에 대한 통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논의의 스케일을 넓히고 높인다 하더라도 개인의 육신이 겪는 고통을 간과할 순 없을 것이다. 차별과 식민성에 대한 모든 비판적 논의

가 그에 함몰되어 숨 쉴 틈을 위한 쾌락을 찾게 되는 개인을 비판하게 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한계는 언제나 존재한다.

정동에 대한 논의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마저 학문의 장, 소속된 집단과 사회 속에서 예외적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가 겪어 온 정동적 궤적의 역사 속에서 모든 논의의 '강조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차이는 학자 간의 오해와 몰이해, 나아가 학자들과 대중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지도 제작자인 라라의 취지로 마무리해야겠다. 그가 정동 지도를 제작하려는 목적은 세 가지다(26쪽). 첫째,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전환, 둘째, 방법론적으로 경험이 아닌 '경험 하부적 차원'으로 전환, 셋째, 정치와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10월 19일에 있었던 라라와의 초청 강연에서 그가 밝혔듯, 이 모든 전환적 사유의 중심에는 결국 '몸의 역량'에 끼치는 오래되고 새로운 조작에 대한 새로운 '틈새' 전략의 발견이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미국 9·11 사태로 대표되는 정치적 공포의 일상화 및 21세기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이 틈새는 항상 권력이 채워나가며 새로운 정동적 조작 전략의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틈새 전략에 대한 대항에 앞장서 온 페미니즘, 장애학 이론 등은 물론 다양한 정동 이론들의 길 안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학문적 경로를 따라 나름의 '감정인류학'과 '존재론적 전환'을 논의해 왔던 인류학적 연구의 전통 또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